

2026년 4월 6일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투자전략팀

KIWOOM WEEKLY

KIWOOM WEEKLY

트럼프의 D-day 전후 변동성 대응 전략

한국 증시는 1) 미-이란 전쟁 리스크 추가 격상 여부, 2) 미국의 3월 CPI 이후 시장 금리 변화, 3) 3월 FOMC 의사록 및 주요 연준 인사 발언, 4) 삼성전자 잠정실적 이후 외국인 수급 향방 등에 영향 받으면서 변동성 국면을 이어갈 전망이다(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5,050~5,650pt)

주말 중에도 트럼프는 이란에게 지옥문이 열릴 때까지 48시간 남았으며, 화요일은 이란에게 발전소의 날이 될 것으로 경고하는 등 이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 다만, 주말에 있었던 미국의 F-15 조종사 구출 작전 성공(if 실패 시 이란에게 협상력 약화 및 군사 공격 명분 제공), 이란의 선별적인 호르무즈 해협 통과 허용 소식 등 불안 진정 요인도 공존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트럼프가 “막판 진통 끝 협상 타결”의 전략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마찬가지. 따라서, 월요일부터 주식 매도 후 현금 비중 확대로 대응하기 보다는 관망으로 대응하면서, 수요일 D-day 결과를 확인하고 난 후 전략 수정 작업을 하는 것이 적절.



Strategi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Market/ESG 아성훈
sh076@kiwoom.com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4월 3일 현재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특히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사,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1. 지난 주 주식시장 동향

국내 증시는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 속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등 불안정한 매크로 환경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반복되는 협상과 압박 패턴 속에 변동성 장세 지속되며 양 지수는 하락 마감 (KOSPI -1.13%, KOSDAQ -6.81%)

주 초반 국내 증시는 전 주 금요일 미 증시 급락, 주말 중 미-이란 갈등 재고조 속 외국인 대규모 순매도 물량 출회된 결과 급락세로 출발. 특히, 주 초반 WTI 기준 국제유가가 재차 100달러 선을 상회하며 원달러 환율, 미국채 금리 상방 압력 가중된 점이 위험 회피 심리 강화로 연결. 또한, 터보 퀀트 여파 지속되는 가운데 메모리 스팟 가격 하락 속 마이크론 등 미국 주요 메모리 반도체주 하락과 맞물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투매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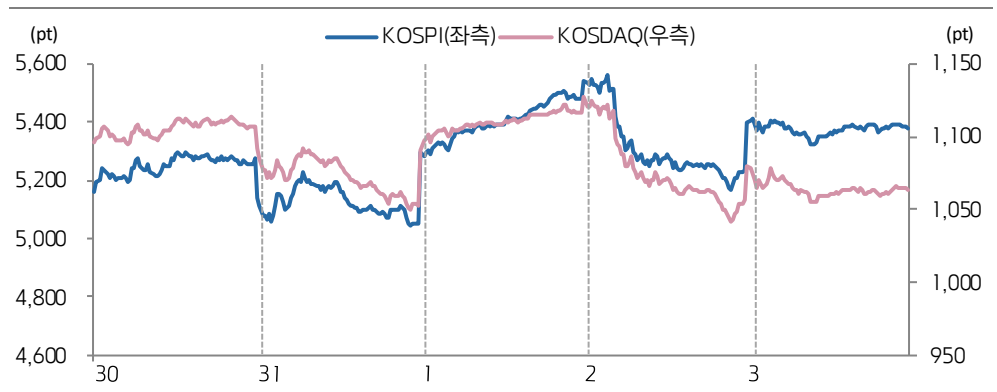
미국-이란 전쟁발 증시 변동성 확대 여파도 지속되는 흐름. 주 중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을 2~3주 이내 종료한다고 언급. 여기에 이란의 새 정권 대통령 또한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공개 서한에서 “대립의 길은 무의미하다, 이란은 미국을 비롯한 여타 국가들에 어떠한 적개심도 품고 있지 않다”는 내용을 언급되며, 종전 기대감 확산되었음

그러나, 주 후반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2~3주 이내 이란에 집중 공격을 단행할 예정이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건은 각국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언급하며 이란에 대한 강경 스탠스를 재차 강조. 다만, 마지막 거래일 이란이 오만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통과 관련 새로운 협약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시장에 일부 안도감으로 작용. 결국, 트럼프의 반복되는 협상과 압박 패턴 속에 국내 주식시장도 등락 거듭하며 변동성 장세 연출. 업종 측면에서는 이란 전쟁 장기화되는 가운데 에너지 안보에 따른 대체에너지 수요 확대 기대감에 재생에너지 업종 강세

업종별로 금속(+4.67%), 건설(+1.69%), 일반서비스(+0.49%), 전기/전자(+0.37%), 운송장비/부품(+0.07%)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오락/문화(-10.82%), 의료/정밀기기(-9.82%), 전기/가스(-7.63%), 증권(-6.95%), IT 서비스(-5.54%)은 부진한 흐름

한편, 외인(-5조 9,074억원)은 화학(+816억원), 금속(+709억원), 운송/창고(+432억원), 통신(+410억원) 순으로 순매수, 기관(+5조 1,991억원)은 제조(+46,221억원), 전기/전자(+32,137억원), 금융(+4,829억원) 순으로 순매수

KOSPI, KOSDAQ 주종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국가	경제지표	대상	전망치	이전치	
4월 6일	월	미국	ISM 서비스업 PMI	3월	54.9	56.1
		휴장	중국·홍콩(청명절), 유로존(부활절)			
4월 7일	화	EU	센틱스 투자자기대지수	4월	-6.2	-3.1
		미국	내구재 주문 (MoM)	2월	-	0.0%
	실적	삼성전자 잠정실적				
	휴장	홍콩(부활절)				
4월 8일	수	한국	경상수지	2월	-	\$13259.1m
		EU	PPI (YoY)	2월	-	-2.2%
	발언	시카고 연은 총재				
4월 9일	목	미국	경제성장률 (QoQ, 최종치)	4분기	0.7%	4.4%(0.7%)
			PCE 물가지수 (MoM)	2월	0.4%	0.3%
			PCE 근원 물가지수 (MoM)	2월	0.4%	0.4%
			PCE 물가지수 (YoY)	2월	2.8%	2.8%
			PCE 근원 물가지수 (YoY)	2월	2.9%	3.1%
			개인 소득 (MoM)	2월	0.3%	0.4%
			개인 소비지출 (MoM)	2월	0.5%	0.4%
		공개	FOMC 회의록 공개 (오전 3시)			
4월 10일	금	중국	PPI (YoY)	3월	0.6%	-0.9%
			CPI (YoY)	3월	1.2%	1.3%
	미국		CPI (YoY)	3월	3.4%	2.4%
			근원 CPI (YoY)	3월	2.7%	2.5%
			CPI (MoM)	3월	1.0%	0.3%
			근원 CPI (MoM)	3월	0.3%	0.2%
			미시간대 소비자신뢰지수 (잠정치)	4월	52.0	53.3
			미시간 1년 인플레이션 (잠정치)	4월	-	3.8%
			미시간 5년 인플레이션 (잠정치)	4월	-	3.2%
	회의	한은 금통위	3월	2.50%	2.50%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 한국 증시 전망

한국 증시는 1) 4월 8일 이후 미-이란 전쟁 추가 악화 여부, 2) 미국의 3월 CPI 이후 시장 금리 변화, 3) 3월 FOMC 의사록 및 주요 연준 인사 발언, 4) 삼성전자 잠정실적 이후 외국인 수급 향방 등에 영향 받으면서 변동성 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5,050~5,650pt)

3월 이후 미-이란 전쟁으로 역대급 주가 변동성을 겪는 과정에서 시장 참여자의 피로도는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ex: 코스피 기준, 3월 이후 서킷 브레이커 2회, 매수/매도 사이드카 9회). 이번주에는 트럼프가 발전소 공격을 유예한 D-Day(한국시간 8일 수요일 오전 9시, 기존 7일에서 8일로 변경)가 대기하고 있는 만큼, 해당 일을 기점으로 양국의 종전 혹은 휴전 합의 여부가 전쟁 피로감 회복의 촉매가 될 것으로 판단.

주말 중에도 트럼프는 이란에게 지옥문이 열릴 때까지 48시간 남았으며, 화요일은 이란에게 발전소의 날이 될 것으로 경고하는 등 이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 Poly Market상 4월 이내에 미국의 지상군 투입 확률이 100%에 도달하는 등 시장에서도 미국의 폭격 가능성을 대비하고 있는 모습.

다만, 주말에 있던 미국의 F-15 조종사 구출 작전 성공(if 실패 시 이란에게 협상력 악화 및 군사 공격 명분 제공), 이란의 선별적인 호르무즈 해협 통과 허용 소식 등 불안 진정 요인도 공존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트럼프가 “막판 진통 끝 협상 타결”의 전략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마찬가지. 따라서, 월요일부터 주식 매도 후 현금 비중 확대로 대응하기 보다는 관망으로 대응하면서, 수요일 D-day 결과를 확인하고 난 후 전략 수정 작업을 하는 것이 적절.

매크로 측면에서는 전쟁 충격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이 대기하고 있음. 일단 지난 금요일 발표된 미국의 3월 비농업 신규고용은 +17.8만건으로 전월 감소세(-13.3만건)에서 증가세로 전환함과 동시에 컨센서스(+6.5만건)도 상회하는 서프라이즈를 시현. 물론 고용지표 자체가 후행지표인 만큼 에너지 비용 급등 여파가 3월 고용시장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 존재. 그렇지만 전쟁발 스태그플레이션 노이즈가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 3월 고용 결과는 증시 안도요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

사실 지금 시점에서 고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쟁발 유가 급등의 충격을 직관적이면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지표임. 이런 측면에서 주 후반 예정된 미국 3월 CPI(10일, 금)는 차주까지의 증시 방향성에도 높은 영향력을 행사할 예정. 현재 블룸버그 컨센서스상 3월 헤드라인과 코어 CPI는 각각 3.4%(YoY vs 2월 2.4%), 2.7%(YoY, 2.5%)로 형성되는 등 전쟁 직전인 2월에 비해 인플레이션이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모습. 아직 4월 초순이기는 하지만, 4월 이후 WTI 평균 유가가 106달러로 3월 평균인 90달러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도 5월 중 발표 예정인 4월 CPI 경계감도 높이는 요인.

그러나 이미 시장은 3월 이후 유가 급등발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수차례 노출된 상태이며, 그 과정에서 CPI에 대한 기대치 자체도 낮아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역설적으로 이번 3월 CPI는 컨센에 부합하는 3%대 중반 수준으로만 상승하더라도, 주식시장에는 중립 수준의 영향만 가할 것임을 시사.

증시 고유 측면에서는 주도주인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실적이 메인 이벤트. 최근 삼성전자는 고점대비 약 15% 급락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슈퍼사이클 피크아웃” 노이즈가 생성되고 있는 실정. 외국인의 보유 지분율도 48.4%로 20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함에 따라, “외국인 추가 이탈 vs 수급 공백(빈집)”과 같은 의견 대립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 따라서, 이번 잠정실적은 상기 노이즈와 의견 대립을 교통정리할 수 있게 해주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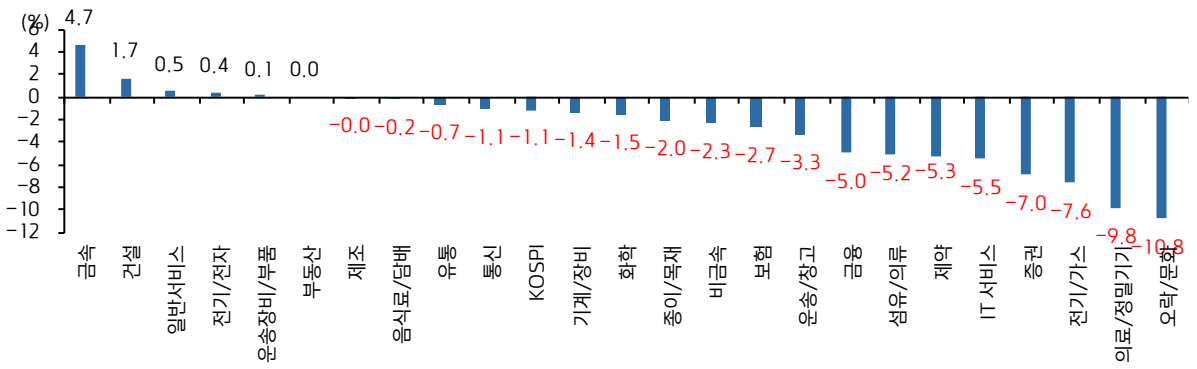
현재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38조원으로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43조원)을 1개 분기만에 만들어 낼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음. 일부 국내외 증권사에서는 1분기 50조원대의 영업이익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1분기 호실적은 예정된 수순으로 보는 것이 타당. 결국, 1분기 실적의 컨센 상회 여부도 중요하지만, 실적 발표 이후 “메모리 슈퍼사이클 전망 재강화 여부”, “애널리스트들의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 추가 상향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

국내 주식시장 주요 지수 기간별 수익률

시장	증가(pt)	기간별 수익률			
		D-1(%)	D-5(%)	D-20(%)	YTD(%)
코스피	5,377.30	2.7	-1.1	-7.2	27.6
대형주	5,696.32	2.9	-0.9	-7.5	30.1
중형주	4,250.24	1.7	-3.1	-4.4	14.2
소형주	2,709.51	1.8	-1.5	-2.9	7.6
코스피 200	798.32	3.1	-0.9	-7.1	31.7
코스닥	1,063.75	0.7	-6.8	-6.5	14.9
대형주	2,605.64	0.2	-9.4	-11.1	15.7
중형주	1,072.93	1.4	-3.9	-2.1	19.3
소형주	2,927.30	1.6	-2.4	2.3	13.7
코스닥 150	1,818.37	0.3	-8.8	-9.5	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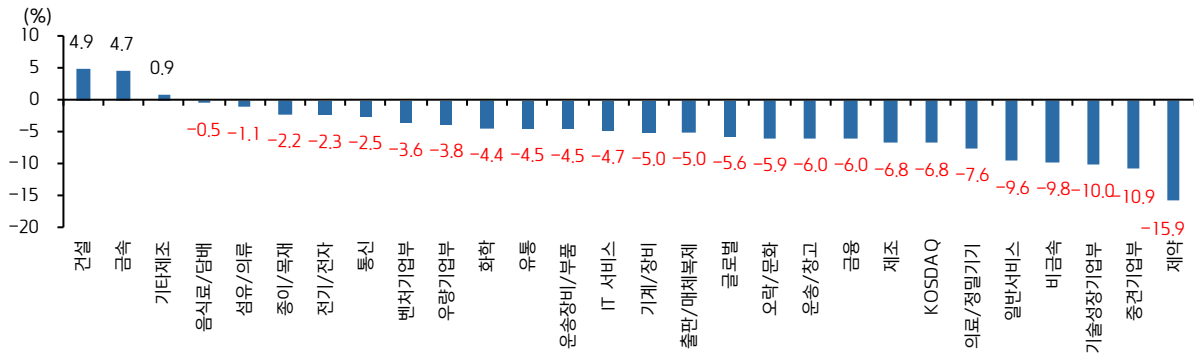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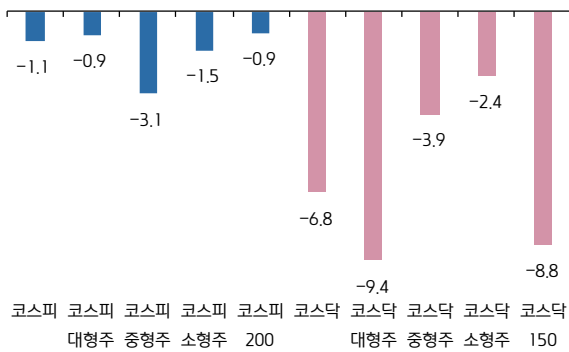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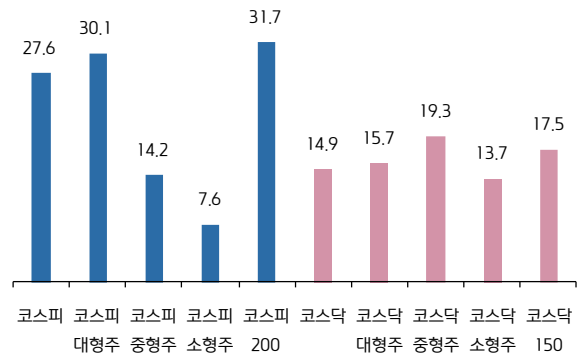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수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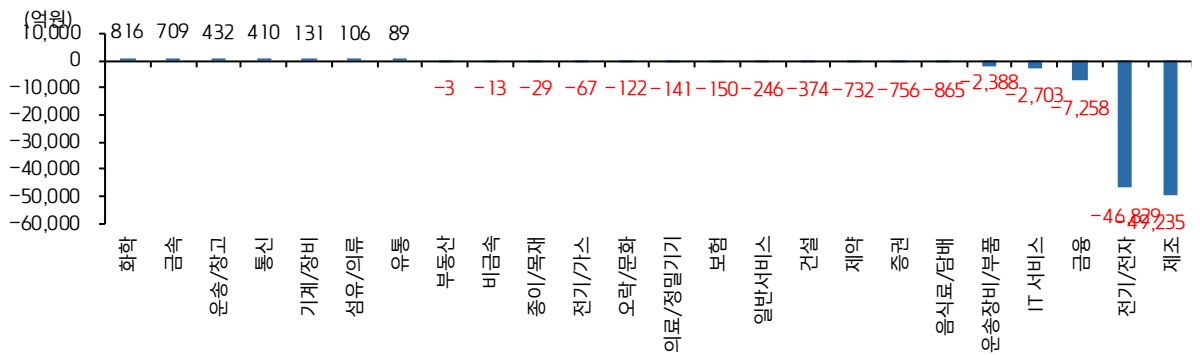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수 연초 대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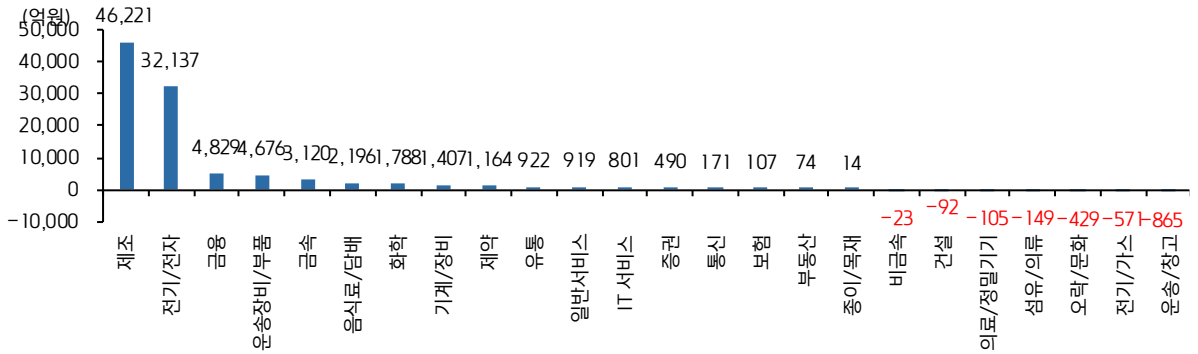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외국인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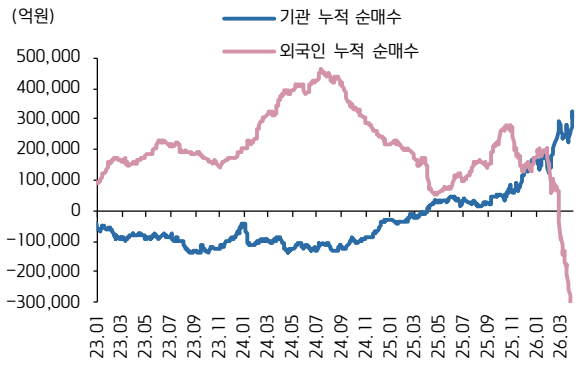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기관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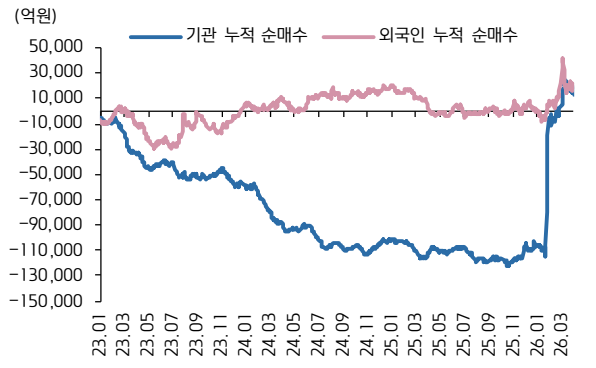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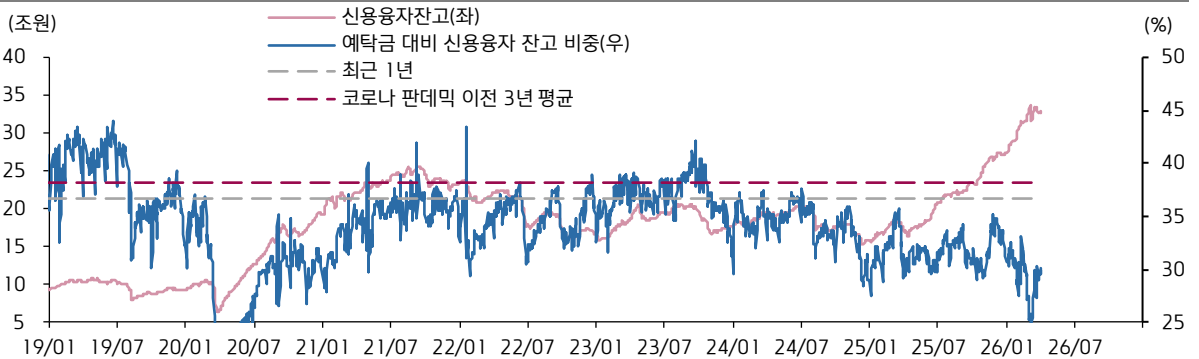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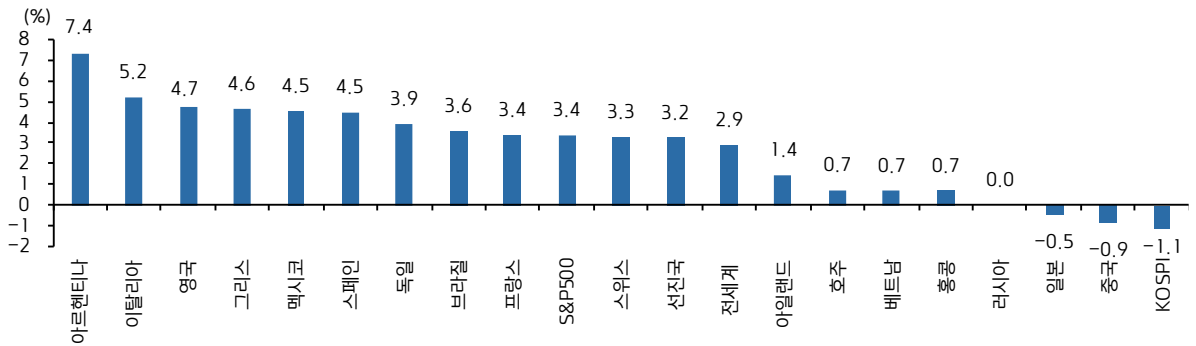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KOSDAQ 신용융자잔고 및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잔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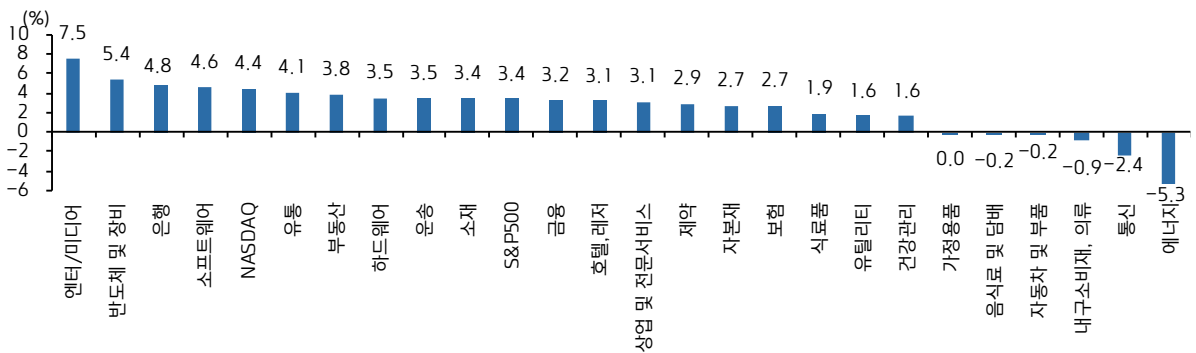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글로벌 증시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26개 업종별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